투자전략 | 2026.01.14

채권전략 한눈에보는상상인자산전략

1 월 금통위 프리뷰: 중립적 금통위 결과의 시나리오

Analyst 신얼 | 투자전략
02-3779-3184
e.shin@sangsanginib.com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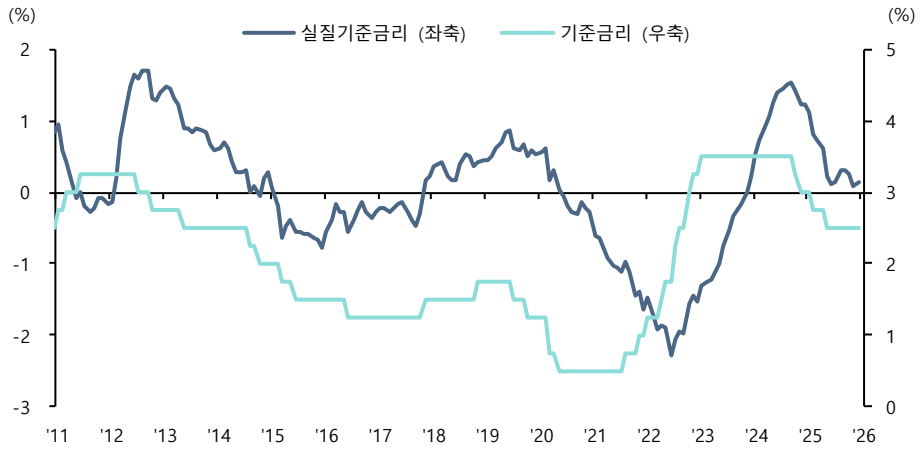
1월 금통위, 기준금리 2.50% 동결 전망

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현 수준 2.50%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25년 5월 금리 인하 이후 5회 회의 연속 금리 동결 행진이 되겠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상당 부분 경감되고 있으나, 금번 금통위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연초 이후 중단기물 중심의 금리 하락세가 멈추고 재차 반등한 것은 이에 대한 경계심이 발현됐기 때문이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이후 일시적으로 제어가 걸릴 1/4분기가 될 것이기에 한은의 금리 조정 시점 역시 쉽지 않다. 게다가, 연말 절상된 원화 가치는 연초 이후 달러 매수세 강화로 재차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시작됐다. 이는 금리 동결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대목이다.

세 가지 관전 포인트

금리 동결은 확실시되나, 금번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동결이 아닌 향후 정책 향방을 가리키는 세가지 조건에 있다. 첫째, 신성환 금통위원의 금리 인하 소수의견 유지 여부이다. 둘째, 향후 3개월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지난 8월 5인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최근 11월 회의에서는 3인으로 축소됐다. 금통위원의 구도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금년의 경제 성장 흐름과 GDP 갭 추정 등에 달려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여부와 정책적 기조를 판단하고 채권시장은 대응할 수 있겠다.

그림 1.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실질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대내외 요인 흐름 속에서 금통위 스탠스 변화 여부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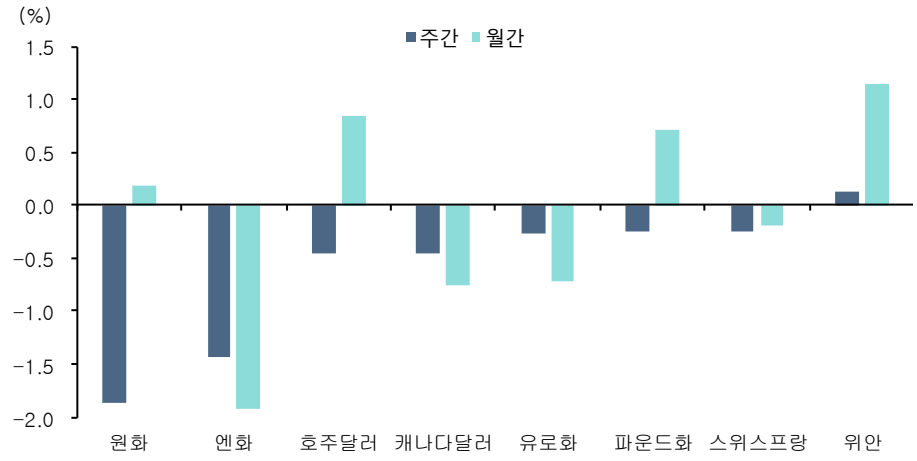
경제 성장세와 금융불안정에 의한 금리 동결 불가피 외환 시장 불안감 지속 중

지난 3Q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리 동결 흐름의 주된 요인은 7월, 8월, 10월 회의에서는 서울발 주택시장 매매가 급등이 견인했고, 11월에는 외환 시장 부담감이 동결 요인으로 재부상했다. 또한, 4Q 이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상승 및 신정부 출범 이후 내수 부진 흐름이 완화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가시화된 점 역시 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이에 금융불안정 요인 지속 및 성장 회복 전환은 금리 인하 지연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통화정책 추가 매파적 성향 미확인 시의 채권시장 온기 자극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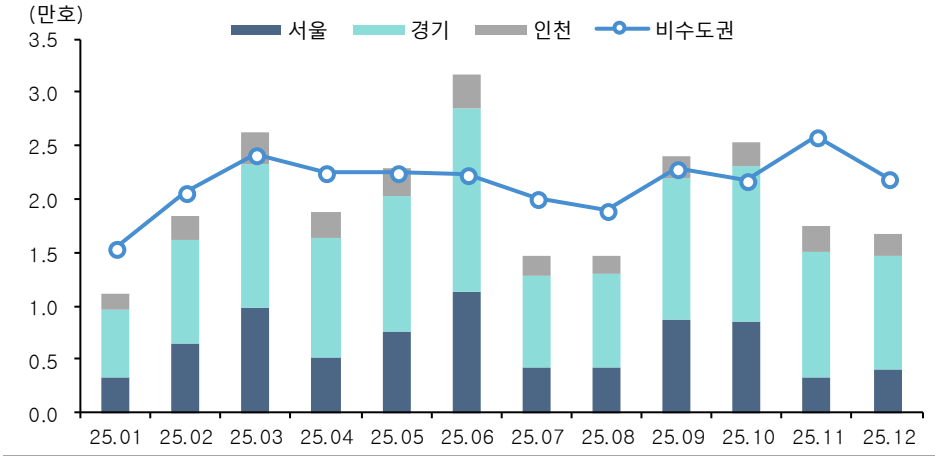
현 시점에서 위 재료들이 미치는 통화정책 영향력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역시 인정할 대목이다. 특히, 원화는 최근 1주일 간 1.9% 가량 절하됐다. 연말 정부의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절상폭을 대부분 되돌렸다. 강력한 주택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 시장은 벌써 재개 양상을 시현 중이다. 금번 금통위는 지난 연말의 매파적 전환한 금통위에 제어만 걸리더라도 시장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매수세를 지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기물까지 매수 온기 확산이 가능하겠다. 다만, 공격적 투자보다는 대응의 관점에서 포지션 구축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2. 원화 및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등락률 비교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요 지역별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 동향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apt2.m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신얼)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